

5월 수출 9% 줄어 반년째 내리막

산업부, 5월 수출입 동향 발표

5월 수출액 459억700만달러...9.4% ↓
미-중 갈등에 반도체 업황 부진 여파
반도체 수출액 '-30.5%', 석화 -16.2%
무역수지 23억달러... '88개월째' 흑자

올해 5월에도 수출이 하락세를 보였다. 미-중 무역 갈등 심화와 반도체 업황 부진으로 전년보다 9%나 감소했다. 특히 반도체 수출액이 30% 넘게 줄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올해 5월 수출액이 459억700만달러로 전년 대비 9.4% 감소했다고 1일 밝혔다. 수출 감소는 지난해 12월(-1.2%)을 시작으로 올해 1월(-5.8%), 2월(-11.1%), 3월(-8.3%), 4월(-2.0%)에 이어 5월까지 6개월째 이어지고 있다. 일평균 수출액은 19억9600만달러다. 전년 대비 15.3% 줄어 들었다.

산업부는 수출액 감소의 주요인으로 ▲미·중 갈등 심화 ▲반도체 업황 부진 ▲중국 경기 둔화에 따른 수출 하락세를 꼽았다. 2월부터 수출 감소세가 둔화했으나 최근 미·중 갈등이 심화하면서 수출 개선 추세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분석이다. 미국(3월 -0.7%), 중국(4월 -2.7%), 일본(4월 -2.4%), 독일(3월 -6.8%) 등 다른 국가 수출도 함께 부진한 상황이다.

품목별로 보면 반도체 수출액이 75억3700만달러로 30.5% 감소했다. 8Gb D램 가격이 57.3%, 128Gb가 24.6% 떨어지는 등 단가 하락세가 지속하고 있고 스마트폰 수요가 정체되는 여파라고 산업부는 짚었다. 글로벌 정보기술(IT)기업 데이터센터 재고 조정도 계속되고 있다.

석유화학 수출액은 16.2% 줄었다. 새 설비 가동에 따른 불량 증가에도 불구하고 중국 수요가 부진하고 수출 단가가 하락한 영향이다.

석유화학 수출 단가는 1t당 1178달러로 6.8% 떨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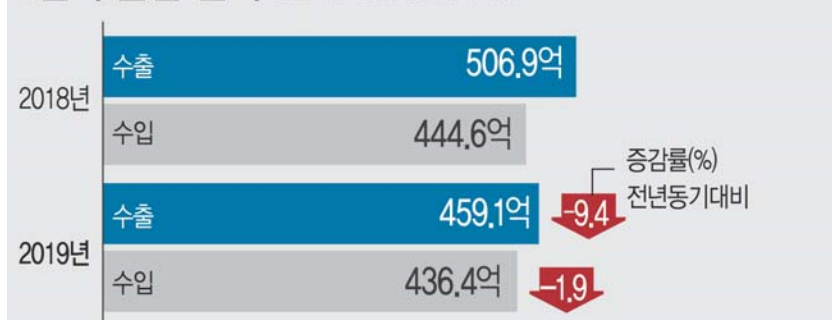
반면 일반기계 수출액은 47억2000만달러로 5.0% 늘었다. 올해 3월 -1.6%에서 4월 0.3%로 개선된 뒤 5월에는 수출액 증가 폭이 더 커졌다. 자동차도 39억5200만달러로 13.6% 증가했다. 이중 전기자동차는 2억3500만달러(8.0)다. 디스플레이는 15억6300만달러로 13.4% 감소했으나 유기발광다이오드(OLED)는 6억1700만달러로 3.7% 늘었다. 이차전지도 6억1700만달러로 5.2% 증가했다.

지역별로는 중국 수출액이 20.1%, 유럽연합(EU)이 12.6% 감소했다. 미국과의 갈등으로 중국 기업의 해외 통상 여건이 악화됐고 EU의 경우 한국 수출액이 가장 큰 독일의 경제성장률이 하락하는 등 경제 여건이 어렵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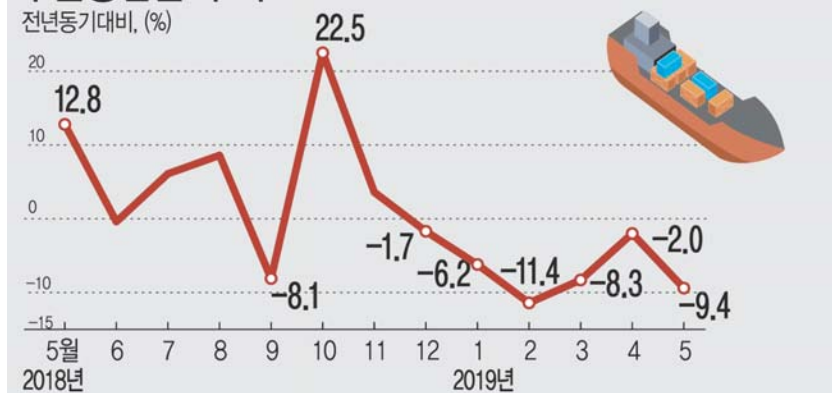
미국 수출액은 6.0% 증가했다. 자동차와 가전, 섬유가 활약한 덕분이다. 미국은 8개월 연속 수출액이 늘고 있다. 러시아 등 독립국가연합(CIS)도 38.8% 증가했다. 일반기계, 자동차, 석유화학, 가전이 인기를 끌었다. CIS 수출액 증가는 11개월째 이어지고 있다. 인도는 반도체, 섬유, 가전이 많이 수출돼 3.6%, 일본은 일반기계, 디스플레이, 섬유 덕분에 2.1% 늘었다.

특히 이달 수출 동향에서 2개월 연속 불량 증가세가 유지되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이라고 산업부는 짚었다. 올해 5월 불량 증감률은 0.7%로 4월(2.3%)에 이어 두 달째 플러스(+)를 나타내고 있다. 1월 8.0%에서 2월 -8.3%로 떨어진 뒤 3월 -7.5%, 4월 -4.3%로 3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나타냈다.

5월 수출입 실적



수출증감률 추이



44.5 주요 품목 수출 증감률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스(+)를 나타내고 있다. 1월 8.0%에서 2월 -8.3%로 떨어진 뒤 3월 -7.5%, 4월 -4.3%로 3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나타냈다.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6월 소비자 수출 활성화 방안, 9월 서비스산업 해외 진출 방안 등을 마련하고 수출활력촉진단 2.0을 통해 3000여개 기업의 수출 애로를 해소하겠다"면서 "반도체 단가 회복, 유가 안정화, 중국 경기 부양책 등 기회 요인이 있어 하반기 수출 상황은 상반기보다 나아질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올해 5월 수입액은 436억

3600만달러로 전년보다 1.9% 감소했다. 원유(유가 하락), 제조장비(설비투자 감소), 가솔린 승용차(수요 부진) 등 품목의 수입액이 많이 줄었다.

품목별로는 원유 등 1차 생산품 수입액이 50.4%, 반도체 장비 등 자본재가 16.6% 감소했다. 액화천연가스(LNG) 등 중간재는 3.4%, 의약품 등 소비재는 2.7% 증가했다.

이에 따른 무역수지는 22억7100만달러로 88개월 연속 흑자를 나타냈다.

뉴스시



車 보험료, 연초 3%대 인상하더니 이번엔 1%대 소폭 추가 인상...왜?

올 초 인상손해를 반영...최근 1%대 인상은 표준약관 개정

주요 손해보험사들은 올해 초 3~4% 대의 자동차 보험료 인상을 한 차례 감행했다. 이어 지난해 말부터는 손보사들이 일제히 1% 대의 보험료를 추가로 인상하겠다고 나섰다.

2일 보험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자동차 보험은 의무보험이다 준세급 성격이 있다"며 "보험사 입장에서 자동차 보험료를 올리는 데에는 그만한 근거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렇다면 올해 초 3~4%대 인상과 이번에 인상되는 1%대 인상의 근거는 무엇일까.

지난해 주요 손보사들의 손해율은 90% 안팎을 기록했다. KB손해보험의 경우 12월 손해율이 100%가 넘기도 했다. 이는 가입자로부터 받은 보험료보다 지급한 보험료가 더 많았다는 의미다.

올해 초 자동차 보험료 인상의 가장 큰 근거는 바로 이 손해율이다. 이와 함께 정비수가 인상분도 함께 반영됐다. 당시 업계에서는 손

보사들의 적자를 고려해 7~8%, 많게는 10%까지 보험료를 인상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그러나 주요 손보사들은 올해 초 자동차 보험료를 3~4%대 인상에 그쳤다. 금융당국 눈치에 손해율 상승 등 보험료 인상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 이어 지난해부터 주요 손보사들이 두 번째 보험료 인상을 공시했다. 하반기에 올 것이라는 예상과는 다르게 5개월도 채 지나지 않아 오른 것이다.

실제 보험개발원은 가동연한 상향에 따라 연간 1250억원의 교통사고 보상금이 추가로 지급될 것이라고 분석했으며 이로 인한 자동차 보험료는 1.2% 선에서 인상요인이 있다고 봤다. 이번 인상 요인에는 사실상 보험사들의 손해율은 반영되지 않은 것이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올해 하반기에 한 차례 정도 더 보험료 인상이 있을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광주 전남 '최초 명품 면세 백화점' 개장

광주·전남 지역 최초의 명품 면세 백화점이 문을 열었다.

(주)우노에 따르면 지난 1일 오픈한 광주·전남 최초의 명품 면세 백화점인 '임팩트 명품 백화점(IMPACT Luxury Mall)'은 고급스럽고 쾌적한 20여개의 매장에서 60여개 해외 명품 브랜드를 취급하며 이탈리아 현지 법인인 IMPACT & AMIKO를 통해 공식적인 경로를 통해 공급받는다.

임팩트 명품 백화점(IMPACT Luxury Mall) 개장으로 매년 증가추세에 있는 광주·전남 지역 소비자들의 명품 쇼핑 역의 유출도 줄어들 것이라 기대하며 1백여 명의 고용 창출과 함께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임팩트 명품 백화점을 운영하는



우노 여경주 대표는 "임팩트 명품 백화점은 개별 병행수입 방식이 아닌 본사 직영으로 운영하고 이월 상품이 아닌 신제품 상품을 취급, 공급 그리고 바코드로 정품 이력 관리를 구축했다"며 "이를 통해 그동안 호남지역에서 찾아볼 수 없었던 명품 쇼핑몰로, 많은 고객들이 찾아와 지역의 랜드마크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은홍 기자

"화웨이 제재로 月 출하량 800만대 ↓...최고 수혜는 삼성"

애플 전문 분석가가 미국의 화웨이 제재로 가장 이득을 보는 업체는 삼성전지라고 전망했다.

1일(현지시간) CNBC는 애플에 정통한 분석가인 TF인터내셔널의 분석가 밍크워가 부자차 노트에 이처럼 밝혔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밍크워는 화웨이 가 중국을 제외한 시장에서 시장 점유율을 잃게 되면 삼성전지가 가장 큰 이익을 볼 것으로 봤다. 애플은 두번째 수혜자로 꼽혔다. 지난해 스마트폰 시장점유율 1위는 삼성전지이며 뒤이어 화웨이,

애플 순이었다.

밍크워는 또 화웨이가 구글 소프트웨어를 대체할 방법을 찾지 못할 경우 매달 출하량은 800만~1000만대 감소할 것으로 추정했다. 화웨이에 따르면 화웨이의 지난해 출하량은 2억대 수준이었다.

미 상무부는 지난해 화웨이 및 68개 계열사를 거래제한 기업 명단(Entity List)에 올렸다고 발표했다. 미 기업은 화웨이와 거래하려면 미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의미다. 특히 구글이 화웨이에 소프트웨어를 공급하지 않겠다고 결정해 앞으로 화웨이 스마트폰에서는 유튜브, 지메일, 구글맵 등을 사용할 수 없게 됐다.

완도군 e-shop 완도군 공식 농·수산물 쇼핑몰

완도군 특산품관

WANDO COUNTY

전국제일의청정바다에서 생산된 전복, 김, 미역, 멸치, 다시마 등 자연 그대로의 맛과 신선함!